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순항

정읍·고창·부안 공동 건립 추진 내년 4월 완공...공정율 70% 자원 재활용 향상 기대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조감도.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이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건립사업은 3개 시군의 기존 노후화된 재활용 선별시설을 공동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재활용 가능한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종이 등의 자원을 선별하는 시설로 시설용량은 1일 30톤의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할 수 있는 규모다. 정읍시 영파동 404-2번지 매립장 인근에 총사업비 102억원을 투입해 건립 중이며, 사업비는 정읍시가 50%, 고창군과 부안군이 각각 25%씩 부담

한다. 추후 3개 시군이 실무협의회를 통해 운영비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현재 공정률 70%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올해 초 원자재 급등으로 인한 철근 자체 수급에 문제가 있었으나, 지난 7월 철재 자체가 확보되어

내년 4월 정상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완공되면 파봉기와 자력선별기, 압축기 등 자동화 선별시스템을 통한 선별작업으로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등의 자원 회수와 재활용이 용이해진다. 또 작업공간 확보로 열악한 근무 여건과 안전사고 예방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충분한 실무협의회를 거쳐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3개 시군 공동 운영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처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재활용 대책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순창군, 섬진강유역 쏘가리 치어 방류

순창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쏘가리 치어를 섬진강에 방류했다. 순창군은 21일 유등면 화탄마을 주민·관계 공무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등면 세월교 앞 섬진강에서 쏘가리 치어 340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방류하는 쏘가리 치어들은 전장 8cm 내외 크기로, 어류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치어

로, 방류 후 2~3년이 지나면 성장해 순창 섬진강 어족자원 증대와 수생태계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읍시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매년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예산을 확보해 섬진강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해 방류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외래어종 퇴치 및 불법어로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드라마 '지리산' 23일 첫방...남원시 홍보 나선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대



드라마 '지리산' 포스터.

남원시가 제작지원한 드라마 '지리산'이 23일 토요일 밤 9시 tvN채널을 통해 첫 방송된다. 드라마 '지리산'은 23일부터 tvN 주말 시청자들의안방극장에 걸리게 된다. 해외에서도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아이치



남원시 인월면 오픈세트장.

<남원시 제공>

iQIYI'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방영될 예정이다. 배우 전지현, 주지훈, 성동일, 오정세, 조한철 등이 출연한 드라마 '지리산'은 종비사극 '강림 시리즈'와 '시그널'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를 비롯해 '스위트홈', '도깨비'의 이영복 감독이 의기투합해 만든 을 하반기 최대 기대작이다. 앞서 남원시는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을 비롯해 지역의 명소를 알리기 위해 촬영장소를 남원으로 유치하는 등 제작지원에 힘써 왔다. 지난해 9월 드라마제작사(주)에이스토리, 스튜디오드래곤, 바람픽처스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리산' 제작을 위해 세트장 건립과 촬영장소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펼쳤다. 촬영은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원활히 진행됐으며 인월면 해동분소와 비담대피소 등 오픈세트장을 중심으로 남원시내, 광한루원, 와운마을천, 년송,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산동부절마을 소나무 숲 등의 풍경이 영상에 담겼다. 시는 드라마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고자 '지리산' 촬영방안을 놓고 여러 방향에서 검토하는 중이다. 그중 하나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오는 11월에 지리산국립공원 전복사무소 뱀사골분소에 개관하는

드라마 '지리산' 기획전시관을 꼽을 수 있다. 또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드라마 촬영지와 연계한 남원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드라마 '지리산'이 방영되면 지리산 일대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드라마가 성공적으로 흥행해 지리산 중심도시 남원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이를 계기로 지리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농식품 명인 발굴 나서

고창군이 지역 농특산품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 명인 발굴에 나선다. 신청 자격은 지역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해당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사람 중 주소와 영영장

소재지가 고창군에 있으면 된다. 신청은 22일까지다. 농식품 명인으로 선정되면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가 교부된다. 또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우선권

이 주어지고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통식품 명인 신청과 맛집 지도 등재의 기회도 얻는다. 농식품 명인 지정 제도는 2018년부터 시작돼 현재 조정 품목에 박영두 명인, 식초 품목에 안문규 명인·최영란 명인, 간장 품목에 김효심 명인, 소금 품목에 라희송 명인 등 5명이 지정돼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 노사민정 손잡고 일자리 창출 시동

농업·식품 분야 850개

익산지역 노·사·민·정 농업·식품분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익산형 일자리' 창출을 시동을 걸었다. 익산시는 지난 20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장에서 노·사·민·정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의 실무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하림그룹을 비롯해 탐마주조합공동사업법인과 푸드 통합지원센터 등 지역 농업생산자단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이 참여했다. 2024년까지 총 3250억원을 들여 8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하림의 대규모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기업과 근로자, 농업과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다양한 참여 주체 간 상생 체계 구축으로 농업과 식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 목표다. 상생협의회의 '익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 수립과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며 실무위원회는 세부적인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익산형 일자리'는 자동차산업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나 '군산형 일자리'와 달리 도농복합도시인 익산의 특성에 맞게 농업이 추가된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로 식품산업과 농업 분야 상생 사업을 통해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중심으로 한 '익산형 일자리'가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새만금 자동차 수출센터 민간사업자 지정

군산시-군산자동차무역 협약

군산시가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의 민간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군산자동차무역(주)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새만금산업단지내 계획 중인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과 사업추진 일정 준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8월 3일 공개모집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지난 1일 실시협약 체결에 따른 상호 신뢰 성실의 원칙에 따른 업무협약이다. 오는 11월 초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상

반기 중 착공해 오는 2023년 중 개장을 목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일준 군산시장은 "민간사업자 확정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시설조성뿐 아니라 운영 활성화 부분에도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내 수출·내수 중고차 시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수출복합센터의 차질 없는 시설 조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의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이 사업이 군산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